



월드컵 소식

앙리에 밀린 트레제게 “내가 왜?”

선발 출전 불투명

한국의 독일월드컵 본선 조별리그 두 번째 상대인 프랑스 축구대표팀 공격수 다비드 트레제게(28·유벤투스)가 동료 테리 앙리(아스날)에 밀려 선발로 나서지 못하는 데 대해 불만을 터트렸다.

트레제게는 12일(한국시간)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내가 자동으로 선발 명단에 들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를 포함해 앙리, 지단 등의 선수를 보유하고 있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좋은 예가 브라질인데 브라질은 호나우두, 호나우지뉴, 아드리아누, 카카 등 공격수를 모두 한 경기에 내보낸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A매치 63경기에 출전해 32골을 넣은 트레제게는 A매치 78경기에서 33골을 넣은 앙리에 비해 성적으로만 보면 크게 밀리지 않는데도 지난 8일 열린 중국과 평가전을 포함해 대표팀에 서는 거의 교체 멤버로만 뛰어왔다.

하지만 당시 평가전에서 지브릴 시세(리버풀)가 다리를 다쳐 월드컵 출전이 불가능해졌는데도 트레제게의 선발 출전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하다. 레몽 도메네크 감독이 앙리를 단축 스트라이커



로 내세울 가능성이 있는 데다 앙리의 파트너로 트레제게와 루이 사야(뎬유)를 놓고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트레제게는 “내 나이가 23살이나 24살 밖에 되지 않는다면 선발에서 제외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나도 소속팀에서 충분히 경험을 쌓았다”며 “내 바람은 항상 선발로 출전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잉글랜드 루니 2차전 출전 가능성 커

에릭슨 “부상 거의 회복”

부상중인 잉글랜드의 스트라이커 웨인 루니가 오는 16일(이하 한국시간) 조별리그 2차전에 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AP통신이 12일 스벤 고란 에릭슨 잉글랜드 감독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에릭슨 감독은 루니가 2차전인 트리니다드와 토바고와의 경기 때 나올 수 있는냐는 질문에 “아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몸 상태가 많이 개선됐고 부상도 거의 회복된 수준”이라고 밝혔다.

1차전에서 파라과이의 자책골로 힘겹게 1-0으로 이긴 잉글랜드는 벤치에 앉아 경기를 지켜보던 루니의 공백을 뼈아프게 절감해야 했다.

잉글랜드는 파라과이와의 경기 때 마이클 오언을 교체하자 루니를 투입하라는 잉글랜드 관중의 거센 요구가 있었으나 그것이 루니의 출전을 고려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에릭슨 감독은 말했다.

한편 루니가 속한 프리미어리그의 맨



체스터유나이티드는 루니가 16강전부터 뛰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에릭슨 감독이 최종 결정을 어떻게 내릴지 주목된다.

한국-토고전 경기장 지붕 닫을 수도

“그림자 TV중계 방해”

국제축구연맹(FIFA)이 현지시간으로 13일 오후 3시(한국시간 13일 오후 10시)로 예정된 한국-토고전이 열린 프랑크푸르트 월드컵경기장의 지붕을 닫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라운드에서 드러워진 경기장 구조물 그림자 때문에 TV중계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 이유지만 지붕을 닫을 경우 온실효과로 내부 기온이 50℃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 FIFA의 결정이 주목된다.

1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르쿠스 지글러 FIFA 홍보국장은 “한낮에 경기

가 열리면 경기장 구조물로 인한 그림자 때문에 TV 중계에 방해가 된다”며 “그림자를 없애기 위해 개폐식 경기장인 프랑크푸르트와 쾰른의 경기장 지붕을 닫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지시간으로 10일 오후 3시 프랑크푸르트경기장에서 잉글랜드-파라과이의 B조 조별리그 첫 경기 열렸는데 그라운드 정 중앙에 떠 있는 대형 전광판과 이를 떠받치는 기둥 때문에 그림자가 생겨 TV중계로는 생생한 화면을 볼 수 없었다.

하지만 한낮에 경기장 지붕을 닫으면 온실효과로 내부 온도가 급상승, 선수들의 경기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공인구 회전없이 차야 골 성공 높아”

日 요미우리 신문 보도

2006독일월드컵축구 공인구인 아디다스 팀 가이스트(TeamGeist)는 회전없이 차야 골키퍼 앞에서 흔들리며 떨어지는 ‘마구(魔球)’가 돼 골로 연결될 확률이 높다고 12일 요미우리(讀賣)신문이 쓰쿠바대학 스포츠공학부 연구진

의 실험 결과를 인용해 전했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이번 대회 공인구로 채택한 팀 가이스트는 표면을 감싸는 가죽 조각의 숫자를 기존 32쪽에서 14쪽으로 줄여 완벽한 구형에 가까운 모양을 하고 있다.

연구진은 공기에 닿으면 연기를 내는 약품을 공에 바른 뒤 대학 축구선수에게 회전없이 차도록 했다.



제13회 무등기교교야구대회가 12일 오후 광주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천안북일고와 광주동성고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8일간 열전에 돌입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동성고 탈락...개막부터 이번



제13회 무등기교교야구

천안북일 선발 김경택에 눌러 0대1 완봉패
진흥고 임요한 호투...인창고 꺾고 16강행

‘다랜딩 챔프’ 천안북일고가 ‘야구강호’ 광주동성고를 누르고 16강에 안착했다.

북일고는 12일 광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제13회 무등기전국교야구대회(광주일보사·대한야구협회 공동 주최) 광주동성고와의 개막전에서 선발 김경택의 완봉투에 힘입어 1-0으로 신승했다.

진흥고도 ‘신흥 야구명문’ 인창고를 4-2로 꺾고 16강에 합류했다.

◇천안북일고 1-0 광주동성고
천안북일고는 0-0으로 팽팽한 투수전이

이어지던 6회초 4번타자 이필훈의 좌익선상을 흐르는 2루타에 이어 광민준의 볼넷과 박용호의 몸에 맞는 볼로 1사 만루를 만든 뒤 이현우의 희생플라이로 결승점을 뽑아냈다.

선발 김경택은 9이닝 3피안타 무실점의 완벽한 투구로 승리투수가 됐다. 동성고는 2차례나 찾아온 만루상황을 특점으로 연결하지 못해 쉽게 무릎을 꿇었다.

동성고는 1회 선두타자 윤명준의 볼넷에 이어 포수 에러와 볼넷으로 2사 만루를 만들었으나 후속타가 터지지 않아 득점하지 못했다.

동성고는 0-1로 뒤진 6회에도 임익준의

볼넷과 임창윤의 우전안타, 노진혁의 좌전 안타를 묶어 만든 찬금같은 1사 만루의 기회에서도 후속타 불발로 승리를 헌납했다.

동성고는 9회말에도 무사 1,3루의 역전 기회를 만들었으나 득점하지 못하고 1회전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진흥고 4-2 인창고

진흥고는 0-1로 뒤진 4회초 2사 2루서 정은표의 2루타로 동점을 만든 뒤 5회 나성범의 우전안타와 상대 실책 2개를 묶어 3점을 더 보태 사실상 승부를 마감했다.

인창고는 3회말 옥기윤-김경업의 연속안타와 이진우의 볼넷을 묶어 만든 1사 만루에

〈오늘의 무등기〉

1차전
광주-충주성심학교(10시)
속초상고-성남고(12시 30분)
청주기공-미산고(15시)
광주일고-구미전자공고(17시30분)
〈앞쪽이 선공·1루쪽 더그아웃·이상 무등경기장〉

서 문용식의 적시타로 선취점을 올렸다. 인창고는 6회에도 이태균이 우중간을 가르는 3루타에 이어 김경용 타석때 홈스틸로 1점을 만회했으나 3회에 바뀐 진흥고 투수 임요한의 묵직한 구위에 더 이상 득점하지 못하고 백기를 들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박세리가 12일 열린 LPGA 맥도널드 챔피언십 마지막 라운드 1번홀에서 티샷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박세리 2년만에 정상 되찾다

■ 맥도널드 LPGA 챔피언십 최종

카리 웹과 연장 접전 끝 우승...김미현 3위

‘잊혀졌던 골프여왕’ 박세리(29·CJ)가 2년여에 걸친 깊은 슬럼프를 메이저대회 왕관으로 털어냈다.

박세리는 12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하브드그레이크의 볼록골프장(파 72·6천596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두번째 메이저대회인 맥도널드LPGA챔피언십 최종일 카리 웹(호주)을 연장 접전에서 제치고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박세리는 최종 라운드에서 3언더파 69타를 쳐 4라운드 합계 8언더파 280타로 웹과 공동선두로 정규 경기를 마친 뒤 18번홀(파 4)에서 치러진 연장 첫번째 홀에서 이글성 버디로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22승을 올린 이후 2년의 세월이 흐른 뒤

23번째 우승컵을 거머쥔 박세리는 메이저 우승컵도 5개로 늘렸다.

또 5개의 메이저대회 우승컵 가운데 맥도널드LPGA챔피언십에서만 1998년, 2002년에 이어 3개를 차지해 남다른 인연을 과시했다.올들어 상금 수령액이 10만3천달러에 그쳤던 박세리는 우승 상금 27만달러를 받아 상금랭킹 8위로 도약했다.

박세리의 부활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한편의 드라마와 다르지 않았다.

선두 미야자토 아이(일본)와 팻 허스트(미국)에 2타 뒤진 공동 6위로 최종 라운드에 나선 박세리는 9번홀까지지는 버디 3개에 보기에 2개를 결하며 그저 선두권을 지키는 데 그쳤다. 11번홀(파5)부터 15번홀(파5)까지 선두와 2위를 오르내리던 박세리는 16번

홀(파4)에서 1.5m 버디 퍼트를 집어넣으며 1타차 단독 선두를 되찾았다.

이미 웹이 8언더파 280타로 경기를 마친 상황에서 1타차 선두로 18번홀(파4) 공략에 나선 박세리는 그만 3퍼트 보기로 승부를 연장으로 넘기고 말았다. 티샷을 3번 우드로 때려 홀짜기 201야드나 남긴 박세리는 4번 하이브리드아이언으로 두번째 샷을 갖대에서 한 뼘거리에 멈추는 완벽한 버디 찬스를 만들었고 우승을 확신한 박세리는 두팔을 번쩍 치켜들었고 캐디와 포옹을 나눴다.

김미현(29·KTF)은 박세리에 1타 뒤진 7언더파 281타로 공동3위에 올랐고 위성미(17·나이지리아)와 안시현(22)이 공동 5위(6언더파 282타)를 차지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이승엽 홈런 무효
사상 최초의 사례

12일 일본 언론은 전날 지바 롯데 마린스전에서 선행주자의 실수로 이승엽(30·요미우리 자이언츠)의 홈런이 무효가 된 것과 관련, ‘사상 최초’, ‘전대 미문’의 일이라며 황당 사건의 최절정판으로 묘사했다.

이승엽은 11일 롯데전에서 1-1이던 3회 2사 1루에서 우중간 투런홈런을 쏘아올렸지만 1루 주자 오제키 다쓰야가 3루를 밟지 않고 홈에 들어오는 바람에 어필 아웃돼 3아웃이 되면서 이승엽의 홈런과 타점은 무효가 됐다.

선행주자 3루 안팎고 홈인

‘펜스 넘기 안타’로 처리

이승엽의 타구는 ‘우월 안타’로 기록 됐다. 일본의 스포츠전문지 ‘스포츠히치’는 12일 인터넷판에서 ‘홈런이 나왔을 때 선행주자가 누를 공파하는 것은 사상 최초의 진기한 일’이라고 썼다. 또 다른 신문 ‘스포츠히치’도 ‘프로야구 사상 최초의 일’이라며 오제키가 저지른 엄청난 실수에 주목했다.

‘산케이스포츠’는 아예 오제키의 주루플레이를 ‘전대미문의 우행(愚行·어리석은 짓)’이라고 규정했다. 이날 게임은 요미우리 구단사에서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을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한편 황당사건의 최대 피해자인 이승엽은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결과적으로 팀이 졌지만 오제키가 빨리 실수를 뒀으면 좋겠다”며 도리어 그를 위로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